

“하나의 벚, 모두의 벚”

www.hanbeot.org

사람 세상

격 월 간 발 행

2024. 4/5

vol.302



와상 장애인 생애 첫 가족여행

“하나의 벚, 모두의 벚”



한 벚 이 하 는 일

뇌병변 단기거주시설 운영

(정원 10명,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주말 혹은 단기위탁 가능)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뇌병변,지체 주간보호, 정원 10명)

미안마 한벗지부 운영

(미안마, 필리핀 등 빈곤국장애인 휠체어 및 중구 유모차 장애아동에게 기증)

미안마방정환기금

(어린이잡지를 미안마의 농촌학교와 고아원에 매월 기증)

한벗투어

(장애인 국내 및 해외여행지원/리프트 버스 및 승합차 운영)

한벗보조공학센터

(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보조기구 지원)

고양시지축종합복지관 운영

(고양시 지축동의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사업 수행)



와상장애인 가족여행 5월부터

한껏이 작년에 처음 시작해 큰 호응을 받은 와상장애인 가족여행이 올해도 서울시 지원으로 이어 집니다. 올해는 횡수를 늘려 5월부터 10월까지 15회.

일 정 1박 2일

신청 대상

- 희귀난치병 등으로 침대생활 하는 와상 장애인 15명
- 휠체어 사용 장애인 30명

참가비 (특식비와 가이드 사례비)

- 와상장애인과 가족 3명- 10만원,
-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1명과 돌봄인 2명- 10만원

1회당 승차인원 8~9명



여행 코스

- 동해안 1 코스 : 한계령→ 설악산 케이블카→ 동해 목호항
→삼척 초곡촛대바위→ 정동진
 - 동해안 2 코스 : 속초 하니라벤더팜→ 고성→ 거진 백섬
→설악산 울산바위
 - 서해안 코스 : 선유도→ 격포 해변→ 원숭이 공원
 - 지리산 코스 : 구례→ 노고단→ 낙안읍성→ 남원 광한루
- ※ 여행코스는 신청자가 원하는 곳으로 모십니다.

추억사진 기증 참여 가족에게 관광 추억 사진 2장씩 드립니다.

신청 5월~10월, 02-393-0661



하늬 라벤더 팜

제주 장애인 관광 3박 4일

43만원, 32만원(장애인 2명, 보조인 2명 기준)

한벗이 제주도에 장애인 승합차와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가고 싶은 관광지를 골라 갈 수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도 미리 신청해주세요.

가이드를 지원하는 경우

차량	승차인원	숙소	1인당 비용
6인승 승합차	5명 (휠체어 2명, 보조인2~3명)	12평아파트 (화장실, 전동휠 안됨)	430,000원 (항공,차량,숙박,식비)

일행 중 운전자가 있는 경우

차량	승차인원	숙소	1인당 비용
6인승 승합차	6명 (휠체어 2명, 보조인2~4명)	12평아파트 (화장실, 전동휠 안됨)	315,000원 (항공,차량,숙박,식비)

※ 1인당 비용 세부내역은 전화 주시면 알려드립니다.

※ 차량만 빌리거나(하루 7만원), 숙소만(하루 5만원) 빌릴 수도 있습니다.

※ 한벗 기부회원(비장애인)도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하루 5만원).

숙소(12평 아파트/6~7명 숙박 가능-위치 성산 일출봉 인근) 문의 : 02-393-0661



미얀마에 휠체어 500대 기증



교보생명 지원으로

오는 5월 28일 미얀마 양곤에서 한벗이 주관하는 휠체어 기증식이 열립니다. 교보생명(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기부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양곤의 13개 국영병원(우리의 시립병원)과 미얀마북지국 산하시설, 미얀마지체장애인협회에 휠체어 500대를 기증합니다.

미얀마 국영병원 휠체어 구비율 8%

휠체어가 가장 필요한 곳은 병원입니다. 그러나 미얀마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국영병원의 휠체어 구비율은 8%에 불과하고, 이마저 보유한 휠체어도 30년 이상

된 낡고 녹슬어 입원환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쿠데타로 부상자가 늘어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휠체어 배분

배분기관	양곤 국영병원 12개소	미얀마북지국 산하시설	미얀마 지체장애인협회	합계
대수	200대	220대	80대	500대

지금까지 미얀마에 휠체어 1,040대 기증

한벗은 빈곤국에 휠체어를 기증하는 국내 하나뿐인 기증기관입니다. 미얀마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황기순 씨와 아이러브안과의 지원으로 모두 540대를 기증한 데 이어, 이번 500대를 포함 모두 1,040대를 기증했습니다.

휠체어를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미얀마

미얀마는 휠체어 조립공장조차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영병원과 장애인시설은 휠체어를 죄다 외국단체의 원조에 매달리고 있는 형편인데, 기증하는 나라가 적어 연간 50대에 불과합니다. 휠체어가 필요하나 이를 가진 장애인은 1%도 안 됩니다.



고급형 휠체어 기증(벨기에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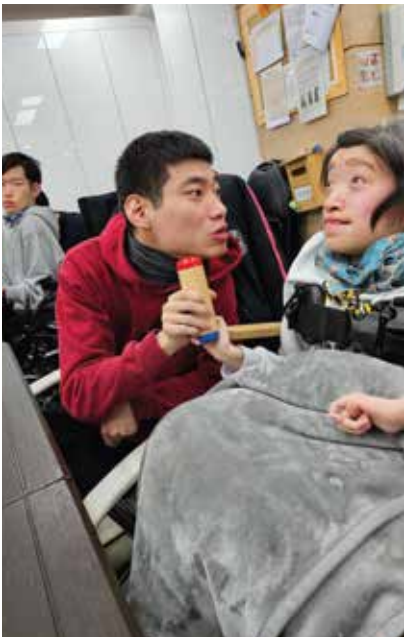
신나게 노래 부르기



음악 시간이 좋아요

우리 주간보호실 이용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활동은 매 주 월요일에 열리는 음악치료 시간이다. 음악치료사 심수연 선생님이 전자 피아노를 비롯한 여러 악기로 흥을 돋우면 이용인들의 얼굴이 상기되기 시작한다. 노래 곡은 다양하다. 댄스곡, 힙합, 아이돌 노래, 발라드와 트로트까지. 이윽고 저마다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면

발음을 내지 못하는 친구들도 속으로 노래를 부르며 신나 한다. 이용인들이 노래 부르는 시간을 좋아하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언어 이상의 감성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자신이 소리를 내지 못해도 음악은 마음속에서 울리니까. 우리 직원들도 노래 시간을 기다린답니다



자원봉사자 해주신 분

숙명여자대학생 : 구주연, 김루비, 김예진, 박수빈, 박시연.

기부해 주신 선물 고맙습니다.

구세군 희망 나누미에서 푸짐한 선물 받았습시다

- 물티슈 35개, 바디워시 12개, 비누 100개, 사각티슈 100개, 일회용 가글 50개, 칫솔 200개, 떡갈비 10봉지, 베지밀 25박스, 콤포차 30박스.

푸드뱅크 : 빵 60개

개관 2주년 기념 「싸릿말」 바자회 성황

지난 4월 20일, 개관 2주년을 맞아 가진 ‘싸릿말’ 바자회에 여러 기업이 상품을 기증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 자원순환을 위한 ‘아나바다 장터’ 도 같이 열려 동네 분들이 쓸만한 물품을 내놓아 따뜻하고 기꺼운 나눔이 되었습니다.



바자회에 상품을 기증해주신 기업과 상점

(주)레가토, (주)코스트코코리아 일산점, (주)차모아, 삼송테크노밸리, LG베스트샵 삼성점, 오밀당 도내점.

우리 복지관 바자회는 날이 갈수록 넉넉해져 주민들이 웃으며 나누는 공동체 장터로 컸습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우리 동네 어려운 가구를 돕고 복지사업을 늘리는 데 사용합니다. 함께 해주신 동네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싸릿말 바자회’는 의류, 신발 판매뿐만 아니라 아나바다 장터, 먹거리 마당, 체험 마당으로 구성되어 약 400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였는데요! 바자회에 참여한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려 좋았다. 작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뿌듯하기도 하다” 라고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복지관 2주년

지난 4월 14일은 우리 복지관이 2주년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떡을 나누며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더욱 도탑고 유익한 기관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웃 복지관에서도 축하해주셨습니다.

네번째 십시일반 바자회 가져



이번 바자회는 질 좋은 상품이 많아 알뜰 주민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직원과 사회복지 실습생, 연세대 의대생 등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종일 운영하였습니다.

서울 홍대에 산다는 정종훈 씨(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이날 '운동하러 성산동을 지나다 우연히 십시일반 바자회를 발견했다.' 면서 작년 바자회 때도 와서 많이 샀는데 이번에는 재킷, 니트, 점퍼, 잠곡 등 푸짐하게 샀다며 만족해했고, 주민 김간란 씨는 상품을 사면서 '좋은 취지의 바자회인 만큼 동참하고 싶다.' 며 가족들의 이름이 적힌 기부금 봉투를 모금함에 넣어주셨습니다. 바자회 기간 중 우리 한벗등지를 위해 일부러 상품을 구입해주신 주민들과 기부 회원에게 고개 숙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기부해주신 선물 고맙습니다 (2월 17일~ 4월 16일)

[개인] 김명규 어머님 나물, 김명희(실습생) 생활용품, 김유진(실습생) 썩떡, 김유진 지인(기부회원) 쌀, 김인곤(기부회원) 고기, 김현도(실습생) 음료, 부흥세탁소(기부회원) 고기, 송서아(기부회원) 쌀, 물티슈, 이경혜(실습생) 기저귀, 익명(기부회원) 가래떡, 간식, 기저귀, 전주영(기부회원) 기저귀, 진 권 부모님(기부회원) 식재료, 차중형(기부회원) 기저귀, 차효진(기부회원) 간식, 최순우(기부회원) 음료

[단체] 금화당 기저귀, 롯데카드 식재료, 생활용품,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마스크, 스네일젤품, 썬스틱, 음료, 순복음교회 쌀, 피노키오 사장님 생닭, 한벗재단 비타민젤리.

아주 편리한 리모컨 누워서 전등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아주 편리한 전등리모컨

방안의 전등을 켜고 끄려면 침대나 바닥 요에서 일어나 벽에 설치된 스위치까지 오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릇도 지팡이를 사용하는 노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는 몹시 힘들고 불편합니다. 이에 한벗은 지난 2007년부터 누워서 전등을 끄고 켜는 리모컨 3,500개를 장애인 가구에 설치해준 적이 있습니다.

전등리모컨을 드립니다.

국산 1/3 가격의 중국제품을 수입하여 시험해 보았는데 가성비가 좋아 회원들에게 드립니다. 장애인은 물론 노인들에게 아주 편리합니다. 혼자 설치하기 힘든 분은 방문해 달아드립니다. 방문설치비 20,000원.



중고 휠체어(전동/수동)를 기증해주세요

중고휠체어를 기증해주면 장애인이나 환자에게 빌려드려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기증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김진현 님(전 한벗재단 사무국장)



전동휠체어 기증 : 최춘애(국내 체류 조선족 장애인)

리프트 체어 신품 빌려드립니다(장기, 무료).



미얀마 어린이합창단 첫 공연

5월 28일 힐체어 기증식에서



미얀마 어린이합창단이 5월 말 양곤에 개최하는 힐체어 기증식 무대에 올라 첫 공연을 합니다. 이를 위해 지휘 봉사자 민성숙 선생이 4월 하순부터 현지에서 머물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민성숙 선생이 머무는 방

민 선생은 호텔비를 아끼기 위해 사원학교에서 마련해준 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4월이 가장 더워 모든 학교가 방학을 합니다. 기온은 섭씨 40도가 넘고 전기는 하루 세 차례, 하루 12시간만 들어와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쓸 수 없습니다. 더구나 머무는 사원학교의 방은 수질이 나빠 식수는 물론 샤워용으로도 쓰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발전기를 사서 달았습니다.

한국 사람은 미얀마에서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할 수 없이 비싼 발전기를 사서 새로 산 에어컨과 냉장고, 정수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구입한 정수/살균 기기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이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날마다 만날 수 있어 너무 신난다네요.

민성숙 선생 정기기부회원 모아

미얀마로 떠나기 전 열정을 다해 기부회원을 모아 모두 33분이 등록하였습니다. 고맙고 기쁩니다. 기부회원들 덕에 우리 어린이합창단은 쑥쑥 커나갈 것입니다. 또 민 선생은 올해 합창단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어린이합창단을 위해 정기기부를 약정해주신 분,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재오, 김갑성, 김광기, 김세현, 김양우, 김연식, 김 정, 김현욱, 김현정, 민계숙, 민성숙, 박순애, 박향림, 백남호, 백진양, 서수진, 서지영, 성일경, 성주일, 성희진, 심혜숙, 양재은, 오세현, 원영철, 유용운, 이명주, 이성순, 이희정, 정나원, 정역순, 조광희, 조천희, 주혜란, 천만용, 최관용, 최광익, 한소은, 한치만(이상 38명).

특별기부금 : 김현정 님 412,000원. 고맙습니다.



맛 좋은 참외요!
(국기호 님 보내주셨습니다.)

한벗 46주년 기념

최고의 사진 전시회

한벗 46년, 사진으로 남은 뭉클하고 감탄스러운 장면들!
그 추억 사진을 모은 전시회가 열립니다.

2024년 6월 28일 오후 6시~8시 효창동 주민센터 4층

(주차 가능. 지하철 6호선 1번 출구에서 효창운동장 방향으로 300m)

최고의 사진을 뽑는 행사(5시)와 저녁 식사 자리(6시)를 마련했습니다.



내한 외국인 휠체어 무료 대여

봄이 오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휠체어를 빌려 가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한벗은 내한 외국인에게 휠체어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2월~4월 중 빌려 간 분 :

미국인 6명, 중국인 3명, 말레이시아 1명, 스페인 1명 필리핀 1명, 호주 1명,
러시아 1명, 내국인 2명 모두 15명.

보내주신 특별기부금, 힘을 북돋습니다 (2월~4월)

김경미 20만원.

김선정 10만원.

심형섭 · 서중석 150만원
(우리말 살려 쓰기 간행비).

조정복 40만원(최준수 목사 기금).

홍혜경 25,000원(동전 기부)



장애인 피부미용, 봉사해주신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꽃향기 날리는 5월, 우리 회원님들을 생각합니다.

2024년 2월 ~ 2024년 3월 입금내역. ()안 개월 수

한빛재단 <미국 텍사스 교민 기부금 (\$2,060)/3월,4월>

달라스		킬린		
3월, 4월		3월, 4월		
김윤원 \$200(2)	아리 \$10(2)	고사리 \$20(2)	배경재 \$40(2)	장지수 \$20(2)
장덕환 \$100(2)	이안 \$10(2)	고향미 \$20(2)	백 수산나 \$30(2)	조 마리나 \$20(2)
스텔라 \$150(2)	루빈 \$10(2)	김 글라라 \$20(1)	양경자 \$20(1)	조용순 \$20(2)
	노아 \$10(2)	김은희 \$20(2)	유 베로니카 \$20(2)	최정임 \$35(2)
	제품 \$10(2)	김데레사 \$20(2)	이 엘리자벳 \$20(2)	카니 박 \$20(1)
		김혜중 \$20(2)	이영란 \$40(2)	허양욱 \$25(2)
		미영 로사 \$20(2)	이정숙 \$20(2)	
		민병형 \$20(1)	전 이사벨라 \$70(2)	
계 \$1,000		계 \$860		

☞ 민병형, 양경자 님이 새 회원이 되셨습니다. 기쁘고 고맙습니다.

☞ 전 이사벨라 님이 특별히 \$100을 기부해주셨습니다.

- ▶ 1,000원 문숙자(2)
- ▶ 2,000원 김계순(덕양/2) 김미란(2)
- ▶ 3,000원 강희춘(2)
- ▼ 5,000원

강난규(2)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얀/장은혜(2) 공충식(2) 박안나(2)
 박환상(2) 구자근(2) 구재순(2) 김관중(1)
 김대현(2) 김동수(2) 김명문(2) 김미영(2)
 김선희(1) 김시홍(2) 김영희(2) 김유경(2)
 김준혁(2) 김태호(2) 김항미(2) 김혜숙(몽독2)
 나호연(2) 노수진(2) 류소연(2) 문혜원(2)
 박범진(1) 박병건(2) 박상준(2) 박용훈(2)
 박정민(2) 박지현(2) 서동욱(2) 설대호(2)
 엄민애(2) 엄해영(2) 오형균(2) 유경희(당산2)
 유해국(2)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이상희(2) 이승희(2) 이양훈(2) 이종수(2)
 이행남(2) 이호열(2) 임정리(2)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명순(2)
 조진영(2) 주우익(2) 최수진(2) 최원진(2)
 한송이(2) 홍영일(2) 홍혜경(2)

▼ 10,000원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강석보(2) 강인호(2) 강필규(2) 구다원(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민(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2) 김려원(2) 김말순(2) 김민수(2)
 김범수(2) 김보경(제천2) 김상순(2) 김석미(2)
 김수리(2) 김숙자(2) 김영지(2) 김원섭(2)

김용남(효창2) 김용선(2) 김윤대(1)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자(2) 김자경(2) 김재환(2)
 김중용/전정원(2) 김준형(2) 김진원(안산2)
 김진현/이주원/이도원(2)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향(2) 김현준(2)
 김형식(2) 김혜정(2) 김화중(2) 노현욱(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상도(2)
 박상준(의정부2) 박선영(2) 박순화(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인자(2)
 박일현(2) 박종성(안양2) 박지숙(2)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1)
 박희정(2) 반종대(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재수(1) 배춘숙/김신근(2)
 백운채(2) 봉근채(3) 서동범(2) 서동원(2)
 서미란(2) 서상용(2) 서영란(2) 석지민(2)
 석지은(2) 석창록(2) 성경희(2) 송기영(2)
 송유자(2) 신동혁(2) 신성아(2) 신영길(2)
 신인아(1) 심우진(2)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3) 양일섭(2) 오상만(2)
 오성근(2) 오용석(2) 오윤서(2) 이건수(2)
 이금주(2) 이동인(2) 이명옥(2)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2) 이민숙(2) 이삼선(2)
 이상일(2) 이상조(2) 이선용(2) 이성직(2)
 이송균(2) 이양재(2) 이영근(2) 이영환(2)
 이외선(2) 이용현(1)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주희(은평,2) 이종태(2)
 이지영(미아2) 이지원(2) 이진훈(2) 임경민(2)
 임동상(2) 임유아(2)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미희(2) 전민우(2) 전소연(2)
 전수익(2) 전현규(2) 정규성(2)
 정미영/김경석(2)정봉열(2) 정성훈(2)
 정수연(2) 정수익(2) 정수화(2) 정승은(1)
 정인기(2) 정창교(1)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2) 조재선(3) 조정복(2)
 조확기(2) 지형근(3) 천성현(2) 최강석(2)
 최경임(2) 최명선(2) 최순희(2) 최태도(2)
 최효순(2) 최희환(3) 추정일(2) 태효원(2)
 하정희(2) 한성진(2) 한혜숙(2) 함영덕(2)
 허옥희(2) 홍관선(2) 홍대식(2) 황백화(1)
 황연희(2) 황정일(2) CUI XIANGY(2)

- ▶ 15,000원 김병석(1) 현영돈(2)현영돈(2)
- ▼ 20,000원

(주)인스월드닷컴(2) 강만희(1) 강순화(2)
 강영철(2) 강희정(2) 김민주(울산2) 김수현(2)
 김승태(2) 김영복(2) 김영자(2) 김용신(2)
 김인숙(2) 김준희(2) 김학준(2) 김혜은(2)
 김훈(2) 문장렬(2) 박지웅/유정영(2)
 백봉현(2) 백지웅(2) 서성민(2) 신광재(2)
 신금옥(2)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양홍대(2) 오정연(2) 유광주(2)
 유시영(2) 이광범(2) 이남숙(2) 이상규(2)
 이서중(2) 이선용(의정부2) 이성재(2)
 이정림(2) 이주형(2) 이희재(2) 임정순(2)
 조윤식(2) 한덕희(2) 현승혜(2)

▼ 30,000원

강재철(2) 금재호(2) 김계영(1) 김홍현(2)
 나호진(2) 민유숙(2) 민정범(2) 박상우(고양3)
 박용길(1) 오청근(2) 윤경자(무악2) 이관희(2)
 이선희(2) 이희달(2) 임용재(2) 장혜실(3)
 정병배(2) 최경희(2)

- ▶ 35,000원 박종성(2)

- ▶ 40,000원 서판민(2)

▼ 50,000원

고명지(2) 김의규/구자영(3) 김은영(1)
 김은주(2) 김지웅(2) 김현수(2)
 민택산업/남기백(2) 백진양(2) 신화웅(2)
 알티엑스포츠(2) 엄해령(2) 오명희(2)
 이종우(2) 조홍준(2) 최해자(2)

▼ 10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휠로피아/김윤제(2)
강무진(2) 김윤희(2) 박지연(2) 안성환(2)
오정선(2) 유영욱(2) 이승수(2)
▶ 150,000원 채진석(2)
▶ 200,000원 오병철(2) 임인경/최홍식(2)
▶ 900,000원 뉴라이프교회(명지준혜, 2)

〈휠체어날개달기〉

▶ 5,000원 조성우(2)
▼ 10,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2)
김계호/이명희(2) 김동현/김승기(2) 김명석(2)
김서주(2) 김순영(2) 김순이(2) 김영희(2)
김용환A(2) 김이태(2) 김정애(2) 김정자(2)
김정태(2) 김진모(2) 김창복(2) 김태윤(2)
김현숙(노원)(2) 김혜숙(2) 남향숙(2) 민혜영(2)
박만수(2) 박수경(2) 박순신(12) 박신용(2)
박신자(2) 박옥자(2) 백마강(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손기현(1) 신승엽(2)
안지민(2) 안지우(2) 양노식(2) 유은수(2)
이가영(2) 이광호(2)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2) 이자영(2) 이장욱(2)
이재숙(2) 이지수(2) 이진수(2) 이해령(2)
이현경(2) 이형재(2) 이해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솔(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영희(2) 전옥순(2) 전해경(2)
정금숙(2) 정나원(2) 정안나(2) 정애리(3)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호(2) 정재희/주희(2) 정현묵(2) 조용환(2)
조혜숙(2) 최광원(2) 최유경(2) 최윤지(2)
한정민(2) 한혜영(2) 홍경숙(2) 홍상문(2)

▼ 20,000원

강용희(2) 강인숙(2) 김경숙(3) 김덕길(2)
김영숙(2) 김일생(2) 김철상/이공이(2)
김효생(2) 민병임(2) 박정경(2) 오문영(2)
이상희(2) 이해숙(3) 장연우(2) 장지분(2)
장해실(3) 장혜연(2) 전승완(2) 정경호(2)
조수현(2) 조승호(2) 최대우(2) 최정희(2)
최진숙(2) 한광희(2)

▼ 30,000원

㈜송지(2) 김옥수(3) 김옥주(2) 이태자(2)
최진경(2)

▼ 50,000원

강옥순(2) 김혜명(2) 박봉희(2) 이승훈(2)
장영순(2)

▶ 100,000원 김삼복(2) 박형상(2)
▶ 120,000원 최명숙(2)

〈한벗동지〉

▼ 5,000원

고현우(2) 공아영(2) 권명현(2) 기효순(2)
김계자(2) 김남제(2) 김민서(2) 김승빈(2)
김용락(2) 김인경(2) 김재열(2) 마은영(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지숙(2)
박창범(2) 서정민(2) 송효림(2) 심상우(2)
양인희(2)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이혜란(2) 임정혜(2) 정민영(2) 정선희(2)
정정임(2) 최은미(2) 한경희(2)

▼ 10,000원

강순기(2) 강인수(2) 강훈선(2) 강현(2)
고유미(2) 광봉현(2) 광영현/장형기(2)
곽우경(2) 구성모(2) 구혜림(2) 권오준(2)
권지연(2) 김가홍(2) 김기래(2) 김면봉(2)
김명순(2) 김명희(일산2) 김미아(1) 김미애(2)
김미진(2) 김병준(2) 김상수(2) 김상한(2)
김석겸(2) 김선옥(2) 김선향(2) 김성길(2)
김세연(2) 김연숙(2) 김연주(2) 김영송(2)
김영진(1) 김우주(2) 김윤근(2) 김윤희A(2)
김인곤(2) 김인순(2) 김인숙(2) 김정미(2)
김정석(2) 김정우(1) 김정화(2) 김종국(2)
김진수(2) 김철호(1) 김태연(2) 김하나(2)
김혜정(2) 김태영(1) 남성현(2) 남진숙(1)
노선이(1) 노신규(2) 노영진(2) 노형승(1)
류재남(2) 류호승(2) 박리라(2) 박일현(2)
박성준(2) 박장훈(2) 박정숙(2) 박정신(2)
박정일(2) 박지원(2) 박해진(2) 변기정(2)
변아름(2) 서동연(2) 서민향(2) 서인숙(2)
서정민(상암)(2) 서희주(2) 성다혜(2) 소기자(2)
송옥진(2) 송은숙(2) 송재하(2) 안영미(2)
양용준(2) 양정현(2) 양현석(2) 양현태(2)
여일구(2) 오광진(1) 오성진(2) 우기후(2)
우춘자(2) 우현하(2) 유민화(2) 유윤미(2)
윤정애(2) 윤태훈(2) 이강전(3) 이경진(2)
이상수A(2) 이상수B(2) 이소정(2) 이송순(2)
이승재(2) 이연호(2) 이영순(2) 이예인(2)
이예준(2) 이용식(2) 이용현(2) 이은숙(1)
이재호(2) 이종욱(2) 이준복(2) 이지영(2)
이태환(2) 이해원(2) 이희권(2) 이희숙(동지2)
인보광/박수빈/박혜빈(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임호정(2) 장순주(2) 장영숙(2)
장은정(2) 장철만(2) 장현주(2) 전예스더(2)
정다미/김재훈(2) 정영석(2) 정영진(2) 정완교(2)
정은숙(2) 정재영(2) 정진하(2) 제갈윤(2)
조수연(2) 조인규(2) 채순옥(2) 채영심(2)
최경희(2) 최선영(2) 최순우(2) 최은미(서초2)
최종금(2) 추지훈(2) 하인석(2) 한지행(2) 홍
은정(2) 황진숙(2)

▼ 20,000원

강신순(2) 강희정(2) 김경란(2) 김명희(1)
김미진(2) 김성우(2) 김여은(2) 김희량(2)
박승환(2) 백진선(1) 송선미(2) 우영욱(2)
원석범(2) 유선민(2) 이병수(2)
이선우/김윤희(2) 이정림(2) 이지영(강서2)
조기택(2) 정현주(2) 하복덕(2) 한재형(2)
한초덕(2) 한혜림(2) 함중수/한정옥(3)
황민규(1)

▼ 30,000원

강동룡(2)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엽(3) 김범준(2) 김윤영(3) 김현도(2)
박희수(2) 서민행(2) 성낙일(2) 오범균(2)
윤일심(2) 이용기(2) 이지윤(1) 임재창(2)
정숙용(2) 정은영(2) 정재연(1) 조길용(1)
조병훈(2) 채한석(2) 최갑석(2) 함미용(2)
황정현(2)

▶ 40,000원 백승열(2)

▼ 50,000원

곽형우(2) 권영수(2) 김간란(4) 김대균(1)
김종호(2) 김한서(1) 김혜영(1) 이태균(2)
조성윤(2) 조함미(2) 채순옥(1) 홍영미(2)

▼ 100,000원

김장옥(2) 박상봉(2) 유정자(2) 주지연(2)
진권(1)

▼ 200,000원

서부지방검찰청(1) 열림교회(1) 하대주(2)

▼ 300,000원

가람엔지니어링주식회사(1) 송호진(1)

〈한벗등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 ▶ 5,000원 박현민(2)
- ▼ 10,000원
구인회(2) 김규백(2) 김선식(2) 김왕수(2)
김진아(1) 안성윤(2)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준구(원주,2) 이탄희(2)
임건태(2)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홍원표(2)
- ▼ 2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2) 박영숙(2)
손병산(2) 이강우(2)
- ▶ 30,000원 김경준(2) 김기수(2)
- ▶ 50,000원 김혜원(2)
- ▶ 70,000원 최수진(2)
- ▼ 100,000원
강은모(2) 오유인(2) 이준구(2) 차성안(2)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5,000원 김운수(2)
- ▼ 10,000원
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김인기(2) 박채련(2)
양영춘(1) 윤준호(2) 이경주(2)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한정환(박종미)(2)
- ▶ 15,000원 김민정(2)
- ▼ 20,000원
김정훈(2) 김종범(1) 신효숙(2) 엄해경/김근일(2)
- ▼ 30,000원
신두철(2) 안소영(2) 오선주(2) 이원재(2)
한정환(한가현)(2)
- ▼ 50,000원
신현관(2) 심진섭(2) 장안태(2) 홍지웅(2)

〈미안마어린이합창단〉

- ▼ 5,000원
김갑성(1) 김세현(2) 민계숙(1) 민성숙(2)
성희진(2) 이명주(2) 천만용(1)
- ▼ 10,000원
고재오(2) 김광기(2) 김연식(1) 김정(1) 김현욱(1)
김현정(2) 박순애(1) 백남호(1) 박향림(1) 성일경(2)
심혜숙(2) 안재은(2) 오세현(2) 유용운(1)
이성순(2) 정나원(2) 최광익(1) 한치만(1)

- ▶ 20,000원 서수진(2)
- ▶ 50,000원 주혜란(1)
- 〈최준수 목사기금〉
- ▼ 30,000원
조정복(3), 기타 83,330원(2)

**각별한 뜻으로
보내주신 기부금
옷깃을 여미고
받았습니다.
정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통권 302호

펴낸날 : 2024년 5월 10일
 펴낸이 : 한벗재단
 주소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전화 : 02)393-0661(대)
 핸드폰 : 010-6747-0661
 이메일 : 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 : www.hanbeot.org

임원/법인이사

백진양(대표) 장우형(부이사장), 권진동, 김윤원
 김정희, 김혜영, 유시영, 채진석, 최명숙,
감사 : 강만희, 김훈

운영위원 : 임춘규(위원장), 조재선(부위원장),
 강제숙, 김영균, 이승우, 장혜선, 청년한벗,
 한동훈, 현승혜

부서별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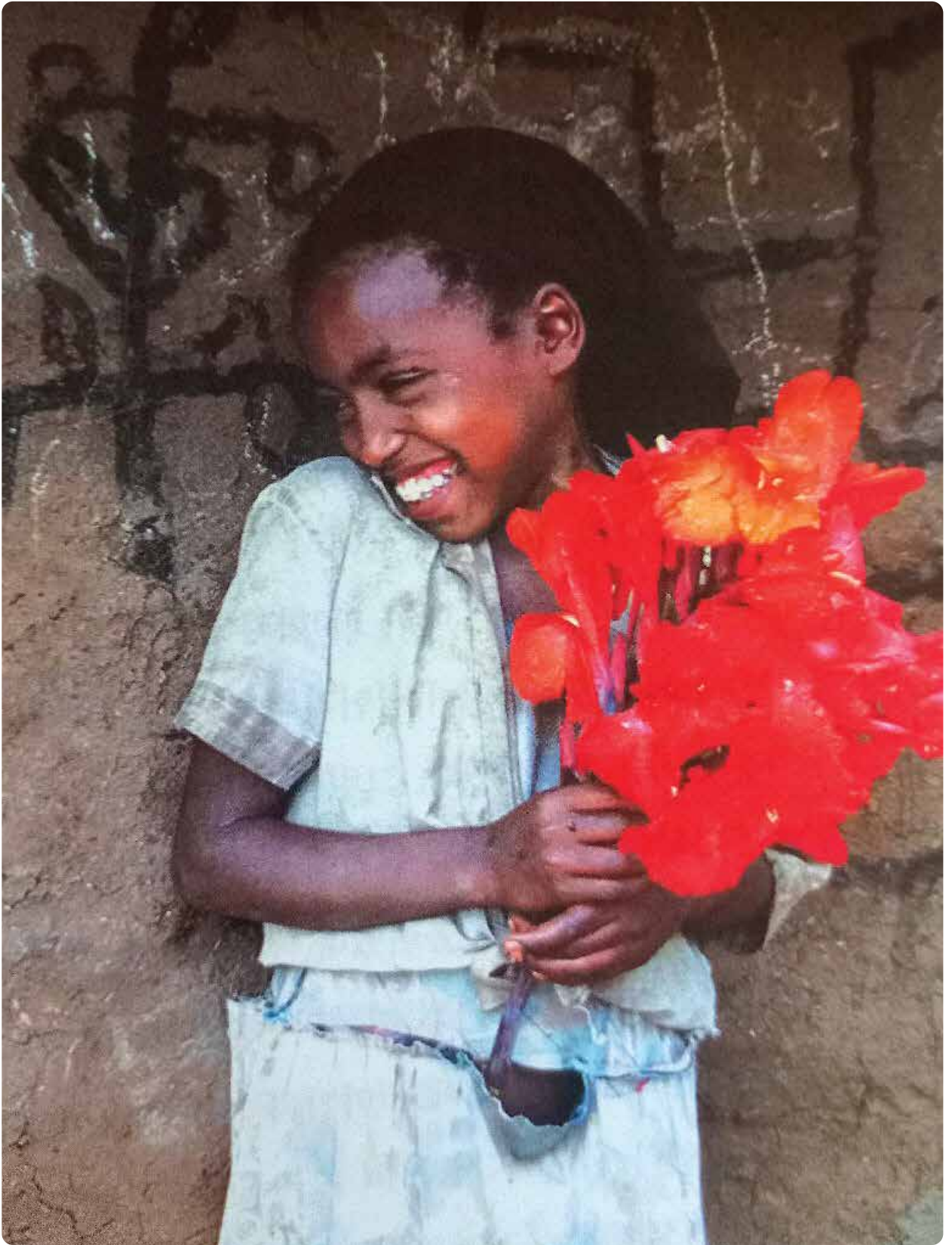
한벗등지 : 02)336-3100
 주간보호실 : 02)713-5050
 지축복지관 : 02)381-8938
 한국휠체어기증본부 : 02)713-1005

재정보고 (24.2월~3월/2개월 합산)

단위 : 원

입 금		지 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후원금	정기기부(재단)	13,406,000	인건비	급여, 퇴직금	13,555,014
	특별기부금	3,240,000	시설지원	등지, 주간보호, 지축	6,320,000
	미국교민기부금	2,408,428	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4,600,172
	등지/주간	6,610,000	업무비	접대비 등	1,902,700
	날개달기	5,420,000	간행비	소식지, 우송비	3,595,700
	방정환기금	1,740,000	공과금	보험료등	637,577
	미안마합창단기금	415,000	사업비	휠체어날개달기	4,450,000
최준수 목사 기금	166,660	방정환기금		2,134,000	
임대수입	원룸관리비 등	10,159,342		장애인 피부미용	162,840
공모수입	외부지원금(교보)	7,898,630		게스트룸	217,560
사업수입	휠체어보증금	2,570,001		보조기기 보증금	300,000
기타		337,710		한벗투어	688,000
				미안마 휠체어기증	7,898,000
				어린이합창단	2,000,000
				기타 사업지원	790,000
				상환금	원금, 이자
			잡지출		884,510
총 계	54,443,141	총 계	54,341,635	잔 액	101,506

※ 위 보고는 시설을 제외한 재단본부 재정사항입니다.



꽃을 받은 가난한 소녀(아프리카)

장애가 막을 수 없는 삶

생애 첫 가족 여행

이 사진은 작년, 한빛의 와상장애인 숙박여행 때 설악동 좌불 앞에서 찍은 장면이다. 사진 속의 김율만 씨(42살)는 심한 뇌병변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20년째 누워서 산다. 중학생 때부터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 그러다 22살 때 잠시 요양원에 머무는 동안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눕게 되었고 그대로 척추가 굳어져 버렸다. 이 모습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년 만의 바다 구경

율만 씨는 지금 일흔 살의 어머니와 같이 산다.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다. 작년, 한빛이 마련해준 바다 구경은 누워서 산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한 소원 여행이었다.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라는 걸 처음 타봤고 정동진 선상호텔에서 부자처럼 비싼 음식도 먹었다. 단조로운 일상에 귀한 이력이 되었다.

인권 강사 김율만

바닥에 누웠고, 말이 어눌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지만 율만 씨는 놀랍게도 어엿한 강사이다. 기업을 다니며 장애인 인권에 대해 강의를 한다. 말도 못 하는데 강의를 한다고? 컴퓨터를 할 줄 알기 때문이다. 누운 채 고개를 돌려 입에 문 막대봉으로 컴퓨터 자판을 누른다. 그러면 글자가 음성으로 나온다. 무대 위의 침대형 휠체어에 누워 컴퓨터 음성을 천천히 들려주는 모습, 하나의 장엄이 아닐 수 없다!

컴퓨터가 일으켜 세운 장애

컴퓨터 자판을 손을 치는 대신, 입으로 불거나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 자판을 입력할 수 있는 특수컴퓨터까지 개발되어 있다. 숨만 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인터넷의 무한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다. 이제 율만 씨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되었다.



힘들다고, 쓰러졌다고, 살기를 포기할 게 아니다.

호흡으로 자판치는 모습(다른 사람 입)